

[기고] 불교학박사, 정보리법사 김재영

“정부지원금 거부만이 능사 아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건립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대전제로 하여 그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헌법전문은 단순한 선언문이 아니라 헌법본문의 조항들과 같이 구체적인 규정력을 지니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구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행해야 할 헌법적 책무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란 무엇인가? 온나라를 떠돌아다녔던 G20정상회의 때, 우리 정부는 용산 국립박물관에서 공식 만찬행사를 개최했다. 여기에 맞춰 ‘고려불화전시회’를 기획했다. 또, 미륵반가사유상과 경천사지다층석탑을 대표적인 민족문화로 전면에 내세웠다.

무엇 때문일까? 우리나라가 불교국가도 아니고 정치와 종교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더더욱 장로 대통령인데, 어쩌서 불상과 불화 불탑 앞에서 세계 정상들을 모아 가장 중요한 국가적 행사를 하는 것일까? 왜 두려울 것이 없는 이 땅의 개신교인들이 ‘특정종교 편향’이라고 들고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정통성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고, 불교문화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민족문화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기꺼이 동의하고 합의한 헌법적 진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불교 아니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어디 있는가? 불교문화 아니면 자랑스러운 민족문화가 어디 있는가? 불교정신 아니면 반만년 민족국가의 명맥을 지켜온 불교의 민족정신이 어디 있는가? 기독교가 이 나라

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인가? 기독교가 이 땅의 민족문화인가? 기독교가 이 나라를 지켜온 불교의 민족정신인가? 대체 불교 아니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불교를 부정하는 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고, 불교문화를 ‘특정종교’로 폄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발상이 아닌가?

템플스테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문화적 교육적 사업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후손들에게 계승시키는 것이고, 세계인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이다. 매년 수만 명의 시민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하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고, 매년 수천 명의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문화를 익히고 간다. 템플스테이를 거쳐 간 서양인들이 불교도가 되겠는가? 그들은 코리아를 이해하고 코리아 문화를 사랑하는 코리아의 팬, 코리아의 친구들이 되는 것이다.

템플스테이 사업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헌법적 책무이고, 우리 불교계가 당당히 요구할 헌법적 권리이다. 장로정권의 농간에 화가 나서, 우리 스님들은 “(정부지원금) 안 받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정당한 분노이고 선언이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뭍 못하겠는가? 안 받으면 그자들 농간에 지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한다. 무엇이 두려워 움츠러들 것인가? 스님들, 힘내고 나가야 한다.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산문 폐쇄는 이제 그만 거두고, 잘못된 자를 불러 호통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이다.



투명운영이 사찰 살린다

불교시민단체, “사찰운영 제도개선이 봉은사 사태의 끝”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12월 16일 만해NGO센터에서 개최한 집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직영사찰 운영제도 개선을 통한 종교 신뢰 회복을 주문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도법 스님(조계종 화쟁위원장) 지홍 스님(화쟁위원, 불광사 회주) 퇴후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동출 스님(정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실행위원) 법안 스님(화쟁위원, 조계종 총회위원)을 비롯해 김원보 교단자정센터 대표, 박경중 동국대 교수 등 불교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봉은사 사태 발생의 원인을 △선거과정에서 갖바위 등 직영사찰 해제를 둘러싼 정치행위 △소통 부재의 일방적 직영사찰 지정 결의 △종단과 주지 개인의 갈등 등 격화 △불교계 정치 의존 현실에서 청와대 대입설 제기 △화합승가 훼손과 대중공의 부재 △소통 부족과 신도대중 소외 등 이라고 짚었다. 봉은사 사태는 불교계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 일부가 드러난 것이란 지적이다.

불교시민사회 역량 커져

도법 스님은 이날 집담회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민사회가 제안했고, 화쟁위원회가 이를 받아 문제해결을 진행한 이 과정을 향후

불교발전의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봉은사 문제를 대화와 합의를 통해 매듭짓는 일에서 불교시민사회 역량이 증대됐고 이는 큰 성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시민사회가 작금의 상황이 전화위복이 되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후 스님은 “정부여당과 불교계가 대처하는 현 상황은 근본적으로는 불교와 국민들과의 문제로 불교시민사회가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종교 불신, 국민 인식 극복해야

동출 스님은 “94년 개혁 이후 갖바위 선분사 등 직영사찰이 감사보고서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운영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 종교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힘들게 했다”고 진단했다.

김원보 대표는 “국민들은 봉은사 사태를 염불의 문제가 아닌 잣밤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봉은사 사태 이후 화쟁위 수습과정도 강남포교 거점 마련의 직영사찰 지정 명분에 의하면 후인 주지 인선을 공개적으로 했어야 했다”고 화쟁위 활동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용기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

장도 “화쟁위가 불교계의 정치 의존적 인식을 살피지 못한 점은 문제였다. 봉은사 역시 불교의 자주화 문제를 제기하기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봉은사 신도라고 밝힌 진전 거사는 “화쟁위원회가 직영사찰 지정을 정당화했고, 직영을 반대하는 신도들의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신도회화가 어용화돼 평신도들에게 제대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찰공영화로 투명성 이끌어야

이날 집담회 참가자들은 ‘직영사찰 운영제도 개선’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박경중 교수는 “사태의 본질을 화합승가의 생명력이 훼손된 점이다. 앞으로 화합승가 전통승가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합 승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사찰 공영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그 과정으로 직영사찰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살리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법 스님은 “직영사찰은 94년 종단개혁의 성과로 이로 인해 교육·포교의 재원이 마련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크다. 제도 개선을 통해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동국대 새 총장 김희옥 재판관 경주캠 새 총장에는 김영종 교수

동국대 제17대 총장에 김희옥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이 선임됐다.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정런)는 12월 14일 동국대에서 제257회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희옥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동국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선출된 김희옥 총장 내정자의 임기는 2011년 3월 1일부터 4년이다.

김희옥 총장 내정자는 1972년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6년 제1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대구 대전지역 검사장과 법무부 차관 등을 거쳐 2006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발탁됐다.

김희옥 총장 내정자의 법명은 당래(當來)이다. 김 총장 내정자는 1980년 해암 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은 것을 비롯해 1999년 2월에는 백담사 회주 오현 스님에게서 수계를 받았다.

김희옥 총장 내정자는 1996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법연수생들의 불교신행단체인 ‘다르마 법우회’를 결성해 지도하는 등 법조계 내에서 불교모임을 이끌어 왔다.

김 총장 내정자는 이사회 정경 발표에서 “동국대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의 구현을 위해 ‘자율과 책임’의 대학 경영 철



학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 △미래대비 교육체계 마련 △최적의 교육·연구인프라 구축 등을 대학경영의 원칙과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총장 내정자는 “헌법재판소 임기 중 퇴임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 기본권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기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남은 일을 철저히 마무리한 후 퇴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사회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에 김영종 행정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신임 김영종 경주캠퍼스 총장 내정자는 1974년 부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부산시 및 고용노동부 등에서 재직 한 뒤, 1985년부터 동국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조동섭 기자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황과의 만남.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김희옥 대주교(카톨릭), 이광선 목사(개신교), 김주원 교정원장(원불교), 한양원 회장(민족종교), 최근덕 성군관장(유교) 등 한국종교지도자들은 12월 9~16일 이스라엘과 로마 바티칸을 방문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5일 교황청 궁전을 방문해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만나 2013년 조계종이 개최할 지구촌 갈등극복을 위한 ‘세계종교지도자 포럼’에 교황청이 뜻을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로마 교황청 제공

퇴후 스님 국가인권위 위원 사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후 스님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직을 사퇴했다.

실천불교는 12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인 결정들과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헌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자진사퇴 할 것과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에 대한 올바른 인사시스템 보장을 촉구한다”며 사퇴이유를 밝혔다.

이상연 기자

조계종, 교강사 지원 확대 교육원, 7개분야 20명에 연 400만원 지급

교육원(교육원장 현응)은 12월 15일 제1차 종단 교수아사리 심사위원회를 열고, 승가교육 및 연구를 담당할 교수아사리(교수사)를 위촉하기로 했다.

교수아사리는 한문불전,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불교사, 계율과 불교윤리, 응용불교 등 7개 분야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교수아사리에 위촉된 스님에게는 매년 4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조계종 교육·연구기관 외래교수 임용 시 우선 추천된다.

종단 교수아사리 지원 자격은 △박사과정 수료 이상 △석사학위 취

득 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 △전문교육기관 전문과정 졸업 후 교육·연구경력 3년 이상 △전문교육기관 연구과정 졸업 후 번역 및 연구 성과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원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1월 2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아 2월 중 서류통과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최종 교수아사리를 선발할 계획이다.

심의위원장은 종법 스님 심의위원은 법산, 무비, 태원, 지안, 해주, 법인 스님 등 7명이다.

노덕현 기자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함월산의 선무도총본산 골굴사의 선무도 화랑사관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치유를 위해 제38회 (19년전통) 겨울 계절학기를 개최합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과중한 학습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1.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와 심신치유 프로그램,
2. 스님의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
3.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캠프」를 지도합니다.

* 연 제: 2010년 12월 26일 ~ 2011년 1월 22일 (4주간)

* 모집인원: 1주간 참가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 수시모집: 1주 / 2주 (3주 이상은 일반템플스테이 가능)

* 대 상: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 접수 및 문의: Tel 054)775-1689, 054)744-1689 홈페이지 www.sunmudo.com

* 교육프로그램

1. 건강회복·심신단련: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산행
2. 호신지기: 호신술, 국궁수련, 승마교육(체험에서 교육으로 전환)
3. 심성정화: 108배, 참선, 운력
4. 정서치유: 명상치유, 선무드라 테라피, 상담치유, 미술치유, 무용치유, 음악치유(관소리, 전통악기), 생태체험학습
5. 교양수업: 문화관광(성지순례, 박물관) 원어민 영어회화, 불교강의와 한문교육, 다도

천년의 시공을 초월한 문화의 향연

템플스테이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우다

시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전통무용 대가의 안무와 오랜 수행경력의 선무도 시연단이 이끄는 전문공연단의 특별한 문화예술공연을 골굴사 상설무대에서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정기공연

2011년 1월 1일부터 (관람료없음)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선무도와 함께하는 ‘2011년 해맞이 템플스테이’에 초대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선무도 화랑사관학교·(재)선무도대금강문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산 304번지 전화 054)775-1689, 744-1689